

포스코, 제철공장서 가스 폭발사고

포항제철소 2고로 밸브 교체작업 중 발생 ... 작업인부 5명 중 2명 경상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고로 가스밸브 교체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월9일 오전 5시10분께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가스밸브를 교체하는 작업 도중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사고로 포스코건설 기계설비 하도급 근로자 이모(53)씨 등 5명이 다쳤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했다.

폭발은 2고로 개보수 공사의 사전작업을 위해 근로자들이 고로의 가스밸브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남아있던 가스가 압력으로 인해 분출되면서 평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튕겨 나가면서 일어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밸브 교체를 위해서는 가스를 모두 빼야 하는데 배관 속에 일부 남아있던 가스가 압력에 의해 새나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포항남부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부상자 이송과 현장 안전조치 등 자체적으로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현장에 감식반을 보내 원인을 파악한 뒤 안전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포항제철소는 5월7일 오전에도 제철소 3고로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쇳물이 일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5/09>